

東洋道學의 體系如何(下之二)

姜春山

程朱의 學 - 大程子

叙論(傳并書)

程顥의 字는 伯淳이니 河南人이라. 父程珦은 官이 太中太夫에 至하나라. 伯淳을 明道元년에 生하니 幼하야 能言치 못한바 叔母-此를 抱하고 行하다가 釵를 不覺中에 見墜한지라. 後數日에 此를 求한대 先生이 手로 指하기를 指하는 所에 隨往하니 果然釵-有하나라. 十五歲時에 弟伊川과 共히 周茂叔에게 就하야 學하고 此로부터 慨然히 科學의 業을 厭하고 道를 求할 志를 두 었다 하니라. 元豐八年 六月 十五일에 卒하니 年이 五十四라. 文彦博이 그 墓表에 題하야 明道라 하다 그의 詩文數十篇의 外에 其他는 別無하고 其 說을 見할만한 者는 오즉 語錄이 有하니라.

그의 學統

孔子의 思想은 論語에 在한바 그 思想의 中心點은 自己人格을 完成함에 在하다. 卽 先王治國의 道를 實行할만한 人格을 養成함에 在하나라. 孔子-沒하매 孟子-獨히 斯學을 繼述하다. 宋代에 學術이 勃興함과 共히 邵子-有하며 周子-有하야 皆哲學家로써 有名하였스나 皆孔子의 意를 得한 與否는 不明한 中能히 孔子의 意를 得한 者는 程明道其人이라 할지로다. 伊川이 明道의 行狀을 作하야 曰『先生이 生于千四百年之後得不傳之學於遺經』이라. 云함이 適當하도다. 明道의 哲學은 純正哲學이 아니오. 修身學에 在하다. 此는 倫理에 踈하고 實踐을 重히 함으로 써라.

倫理論

(一) 仁은 卽 元氣 明道는 性善을 孔子와 調和키 爲하야 甚히 苦惱하였나니 諸家를 歷問하야 此를 釋코저 하였도다. 當時 그 思想이 아즉 未定하였스나 『反求諸六經而得之』라 稱하였스니 六經이라 함은 卽 禮樂詩書易春秋-是니라. 孔子는 一個의 仁을 主張하니 仁의 德됨은 名狀키 不可하야 其 大-無外

하고 其 小-無內라. 易에 云한바 『天地의大德을生이라』 하니 故로仁은卽生이라此生은一元의氣에由하여成行되나니 易에曰 『乾元된者-資하여 始한다.』 하며一元의氣는卽仁되지만이不可하니 仁卽善치아님이不可하다故로易에曰 『元者는善之長이라人物이皆此一元의氣를 受하여生長하나니 故로그性이善치아홀理-無하다.』 하엿도다明道-以爲하되 仁은卽元氣임으로써善하다하엿스니是卽彼가善의基礎를得하여荀子를凌駕하고 孔과 孟을調和한바라하노라彼の一世談說이畢竟此에歸치아님이無하니라

(二) 性은卽元氣 此가前諸子에比하여大히異한바明道の性說에最히注意할價値가有한바니라曰 『生之謂性, 性卽氣, 氣卽性, 生之謂也』 라하니性卽氣의一語는前款에論述한바의元氣-是니라故로性은善하다한다又曰 『人이氣稟으로生한以上은理에善惡이無키不能하나然하나性中에元初兩物이相對하여生함이아니라幼로부터善함이有하고惡함이有함은是-氣稟의自然일뿐이오善은本來是性이됨과同時에惡도亦性이라謂치아님이不可하다』 하엿스니然則明道는性論이不完全하도다

(三) 性은絶對 性은이미元氣니元氣는宇宙間에充盈한者라그絶對됨은論을不俟할지로다此觀念을基底로하고所謂定性書一篇을稿하니라그性의絶對를論함에曰 『所謂定』 이라함은動도亦定, 靜도亦定, 將迎도無하고内外도無하니苟外物으로써外라하여已를産하여此에從할時는是已가性으로内外가有타함이로다

(四) 仁은絶對 仁은元氣卽性됨으로써그絶對됨은再言을不得할지라但性은元氣를靜적으로觀하고仁은元氣를動的으로觀함에不外하니彼の識仁篇은此觀念을基底로하고論한者라그仁의絶對를論함에曰 『仁은渾然하여物과體를同包하니義禮智信이皆仁이라』 하고又醫家の比喩로써說하야曰 『醫書의手足痿痺가卽不仁이라』 하니此言이最히善名이라謂치아니치못하리로다仁者는天地萬物으로써一體가되니已-아님이無하야手足이不仁할時는全身體의氣亦貫通치못하야已에屬치아니하나니故로 『博施濟衆은聖人の功用이라』 한다然則仁이一貫의宇宙의絶對되는意-此에서見할지로다二程의語仁을說한者-凡數十條에一도斯意-아님이無하도다

(五) 心 宇宙乾元의氣는性이니卽仁이라故로形은道지아니치못할지라曰 『道卽性 若道外尋性 性外尋道 便不是聖賢論天德』 이라하다然하면彼の心에關한見解는如何한가問하면卽人心, 道心の別이有한者라할지라도道心은그本性으로言卽天理라天理는卽道니唯人欲이蔽할時는天德을忘함에至하는故로人欲을除할時는心卽天理가되나니凡心은活動의物이라그存在에서力學的이되지아니치못할지니今明道所謂天理는性으로卽元氣니心도亦元氣로써力學的實在라하나니라

倫理論의結言 天地의生氣를仁이라하고人에在하얀此를性, 道, 道心이라하니

故로道心은人으로써는同치아님이無하고聖人の傳한바斯心에서出치아님이無하니此即絶對로써그天眞을發揮하는바法은知左하다

그의工夫論

修爲의工夫는主一無適에在함 各人の性은本是圓滿具足한者니孟子所謂『萬物皆備於我』의言이果然하다오즉그人欲이遏蔽함으로그本來의善性이自己의光明을發揮함을不得하나니故로修爲의工夫는人慾을去하고홀로公共의道心만存케함에在할뿐이다然則그法은오즉敬으로써心을治함에在하니라敬할時는天然의妙質이그대로發現되나니曰『主一無適，敬以直，內便有浩然之氣，浩然，湏要實識，得他剛大，直不習，無不利』라 하니라.

(一) 修爲의道는爲學에在함 生하야知하는者는世에其人이少하다大抵그性を蔽하는人欲의害를防코저하면即爲學의必用이是라爲學이라함은下로人事를學하고上으로天理에到達함이니한갓空文浮言을弄함은아니라故로曰『學者湏學之，知道者進德而已，有德則不習，無不利，未有學養子而後嫁 盖先得是道矣，學文之功，學得一事，是一事，二事，是二事，觸類，至于百千，至窮盡，亦只是學』이라하니此로써그所謂爲學의何者됨을可見하겠도다

(二) 修爲의工夫는內外를忘함에在함 性의大-內外를絶하니故로吾人은心을動치勿하고靜的으로是非를洞察하야我로써喜怒치勿하고物로써喜怒할지니此意는定性書後半에在하니라曰『夫天地之常以其心普萬物而無心，聖人之常，以其情順萬事而無情，故，君子之學，莫若廓然而大公，物來而順應』이라하고易에曰『艮其背，不獲其身，行其庭，不見其人』이라하며孟子曰『所惡於智者爲鑿也，與其非外而是內，不若內外之兩忘，兩忘則澄然無事，無事則定 定則明，明則尚何應物之爲累哉，聖人之喜，以物之當喜，聖人之怒，以物之當怒，是，聖人之喜怒，不係於心而係於物』이라하였도다 然則修爲의工夫는皆我의主觀的되는情을制하야彼의客觀的되는理에隨由하는所以니라

(三) 修爲의工夫는仁을識함에在함 此는仁의絶對되는事를知하고後에此를體認함을謂함이라故로曰『學者湏先識仁，仁者渾然與物同體，義禮智，皆統於仁識得此理，以識敬存之而已，不湏防檢，不湏窮索，若心懈則有防心，苟不懈，，何防之有，理有未得故，湏窮索存久自明，安待窮索，此道與物無對，其大，不足以名之』로다

(四) 工夫論의終言 以上四者는工夫의綱領뿐이니前二者는去邪를基하고體認을基하니라彼가修爲法을佛家에서學得하야反히佛가와相異함은修爲에在하야下學과上達을必然的으로同一케하였스나佛家は下學의一條를廢하고但見性成佛만唱導하니此點에서佛家の修爲는社會에無益하고儒家의修爲는社會에有益하니라

結論

明道の哲學은工夫의方面으로는破綻을見치못하겠으나理論의方面으로는決코成功하였다謂키不可하니卽性에善惡이有한바說이明正精確함을得치못함으로써-라 次에明道哲學의主要한點을舉하면左와如하니 (一) 元氣는 卽性이라함이고 (二) 道心은卽性卽天理라함이고다 然한데그弱點을補한者는明道の弟伊川이라한다第一主點을繼紹한者는楊龜山을經하여胡五峰에至하고第二主點을繼紹한者는謝上蔡에傳하여陸象山에至하였나니라

小程子(傳并書)

程伊川의名은頤요字는正叔이니河南人이라伊水上에在한故로伊川이라하다明道の弟니高識이有하야禮-아니면動치아니하고十八歲時에闕下에上書하야仁宗으로하여곰王道와重大함을勸하니라大觀元年九月에卒하니年이七十五라嘉定十三年에諡하야正公이라하니基著한바易傳四卷, 宋志九卷, 時文數十卷이有하나 그의哲學思想을可見할만한者는但語錄뿐이다二程學問이相同한者는그經歷이同함에歸한者로되伊川의學源을不可不明道에게淵源하였다고假定치아니치못할지라故로吾人은浩瀚한二程全書中에就하야오즉明道와相異한點만論코저하노라

性과 氣

明道는性善을說明함과共히그惡의由來를說明코저하다가失敗한바曰『人生氣稟理有善惡』이라하였나니此에伊川이明言하야曰『人性은皆善하나但氣에清과濁이有하니清氣를稟한者는生하야善人이되고濁氣를稟한者는惡人이되나니라性은善理로써 善惡이有함은卽才라』하고又曰『性出於天, 才出於氣, 氣清則才清, 氣濁則才濁, 才則有善, 有不善, 性則無不善』이라하다更히性の普遍的善으로써各人에平等한바를說하야曰『性無不善而有不善者才也, 性卽理, 理則自堯舜, 至於途人一也才稟於氣, 기유청탁 稟其清者爲賢,稟其濁者爲愚』라하니라此에至하야性과氣는分明하야性善論이必定하였다할지로다

(一) 性の動 性은卽理니抽象的, 形式的이아니요力學的이니라故로性은發動할만한者니發動할時는此를情이라한다性은絶對善하나情은그宜를得키不能하니라然이나此로써情은不善이라云키不可하다或人이性善情不善의問에對하야『情者는性動也, 要歸之正而已, 亦何得以不善名之』아하였스니情으로써性の動이라하면그不善이無함은明白하니라然則情은先天的腦髓的으로善치아님이不可하다

(二) 性卽心 伊川은玆에至하여性卽心이라道破하니曰『孟子曰盡其心者，知其性，心卽性也』라하얏다然則性과心은如何한意味에서相異한가? 함이疑問이라此에對하여曰『在天爲命，在義爲理，在人爲性主於身爲心一也』라하다 然하면命，理，性，心이皆道の異方面에不外한바道는 卽活動的이라萬物을生成하는바의本體인故로心은本體가되지아님이不可하도다

(三) 心은本體니라 心은生成하는바의本體니故로曰『心生道也，有是心卽具是形以生，惻隱之心，人之生道也』라하며心은絶對니라故로又曰『一人之心 卽天地之心』이라하니此点에서卽明道伊川이一致하엿다하겟도다心은本體로써萬理를具備하니라此點에서又有名한沖漠無朕說이有하니曰『沖漠無朕，萬象森然已具，未應，不是先，已應不是後，如百尺之木，自根本，至枝葉，皆是一貫，不合道上面一段事，無形無兆却待人旋安排，引入來，教入塗轍』이라하니盖理는心에備하얏스나內가아니라踏하여行할만하고又外가아니라沖漠하야痕跡을見할만한者-無함으로써라卽日常彝倫의道로써酒，掃，慮對로부터忠孝一切의道에至하기까지皆是니라

(四) 知識 心은理요氣는形而下니大小限界가有함을不免할지라物의生함은氣의凝集이요物의滅함은氣의披散이라故로個別原理는畢竟氣에在하니曰『物之名義與氣，理通，貫天之所以爲天，本何爲哉 蒼蒼爲耳矣，其所以名之曰天，盖自然之理也，名出於理，音出於氣 宇宙由是而不可勝窮』이라하다又彼가氣에淸濁이有함으로써各物의差別은理가아니요氣에在하다함은最히可觀할點이니此-朱子學의濫觴이로다

彼가理와氣를區別하여知識에도亦聞見(學而知之)의知와德性(默念而通)의知가有하다하얏나니所謂聞見의智는氣에屬하야限이有함을不免하고德性의知는理에屬하야大小廣狹이有한事-無하니曰『聞見之智，非德性之智，物交物則知之非內也，今之所謂博學多能者是也，德性之智不假聞見』이라하얏다所謂勉치안코中하면思치안코得하는者는此德性의智가有함으로써라

(五) 性氣의結言 伊川이性卽理라斷言하야氣에淸濁이有하다規定하고性과氣의區別을截然케하야氣로써形而下라하고性으로써形而上이라하얏다然이나力學的實在가된다하야此를心과同一케함과同時에沖漠無朕說을成하니라又性卽心이며本體라하얏스나그發現은既存한氣를通하야遂成됨으로써그哲學의立脚地는二元論이니決코唯一의心이發現하야써宇宙萬物을生成하얏다함이아니라此가明道와異한바-니明道의哲學은性으로써 卽元氣가된다한바의一元論이니라

工夫論

(一) 修爲는氣를養함에在함 伊川은氣의淸濁이有하다한故로修爲의目的은그

濁한者를修治함에在하니曰『氣에淸濁이有하고性은即不善이無하다孟子의養浩然之氣는此를養함이니至極의點에達하면淸明純全하야昏塞한바의惡을去한다』하다然하면此를養하는바法은何에在한가?曰『寡欲』이라하니라

(二) 修爲의工夫는窮理에在함 伊川이以爲하되『窮理를積하면然後에脫然하야了할바-有하니 一個의事에만着目하야窮理의效를終한다함이 不可하다』하엿스니伊川이此意를說한바-凡數회에 그의根本思想임을可知하겟다窮理의法을分하야 三이라하니『一曰書를讀하야義理를講明함이요 二曰古今人物을論하야 그是非를別함이요三曰事物應接하야 其當에處함』이라明道의趣旨와異한바-니그聞見이知에屬함으로써象山이極히反對하니라

(三) 修爲의工夫는眞識에在함 耳目의識은行의發함에不足하니眞히心에知了한後에야 비릇오行에發함을得할지로다一次虎에게嚙牙의害를蒙한人은虎의名을聞하고도顔色이忽變하나尙히嚙牙의痛傷을感치안는者는傷者와如히神色이忽然激變치아니하도다學者의眞知도亦斯와如하야大抵勉強하야道에合코저行動하는者는決코永續키不能하니라人의性이本善하니理에循하야行함이順하니라

(四) 修爲의要는坐禪入定에在함 學者의先務는心志에在하니聞見知思를并出코저하야도固不可하도오즉思慮의紛亂이有할時는반듯이坐禪入定할지니我心의明은鑑과如하야萬物의交感치아님이無하고隨하야此로써思慮케안할事-不能하니若此를免코저하면唯心의主를要할뿐이다所謂主라함은敬이오敬은主一無適을云함이니人心은二用키不可하도다今主一無適을習鍊하면即思慮紛亂의患이自然消滅할지니易에所謂『敬以直內, 義以方外』라한者-是니라 直內는主一의義니不期不慢하야屋漏不愧가皆敬의事니라但此敬을存하야涵養할時는自然히天理가明한다하니此는程學과異한事-無하니라

(五) 工夫論의結言 明道·伊川이理論의相異함에從하야修爲의工夫도目異하니明道는一元論인바그一元은即道心이니此道心の邪惡을除排함은修爲工夫의目的이요伊川은二元論인바그二元은對等的인性과氣니라氣에濁함이有한故로窮理의必要를見하니라然한즉明道는悟脫의이요伊川은窮理의이라할만하도다

結論

伊川은明道哲學을繼하야性氣의二元을建設하니是則朱子를由하야繼紹開發된者니라修爲論에一方으로는窮理를主張하야象山哲學을勃起케한一原因이라하겟고又一方으로는知行合一論을唱하야王陽明哲學을誘起케하니라

程學의後繼

(一) 心學에重을措한者-謝上蔡…(明道의學風)

(二) 性字에重을措한者-楊龜山…(伊川의學風)

甲, 謝上蔡

謝上蔡의名은良佐요字는顯道니壽春上蔡人이라故로上蔡先生이라稱하다剛明誠實하야明도가頗히其人됨을讚하니라

根本思想 上蔡의學은明道の簡易學風을受하야心一字로써中心을삼고窮理에由하야此中心을開發코저하엿나니故로其心を論함에曰『心者何也 仁是已 仁者何也 活者爲仁 死者爲不仁』이라하엿스니此-明道の仁으로써元氣라하고性이라하며道心이라함과異치아니한바更히語를繼하야曰『今人이耳體의麻痺痛痒을不知하면此를不仁이라謂할지라桃杏의核를種하야生할만한者면此를桃仁, 杏仁이라謂하나니卽生의意니此를推하야仁을見할만하다』하엿도다此와如히心を仁이라하고仁을具體的으로說한結果는自己의尊大를感知케하엿다自己의尊大를弊한者는人欲이니此를去하는工夫를乃儒佛에分하야佛은見性이라云하야性の何者됨을知함에止하니라然하면儒家의人欲을掃함은如何한가曰窮理에在할뿐이다理는萬殊하나畢竟統一總腦한바有하니故로其大한者를究하면自然히貫通할바有할지라豈一一이此를究하랴此-謝子가明도에距하야佛門悟入에近한處니라然하나佛家와如히全히下學의工夫를廢함이아니오그所謂窮理란者는眞知를要할뿐이라 要컨대上蔡는具體的으로仁을解釋하야心이라하고天이라함으로써心이其學의中心이되엿나니그의『佛之論性 如儒之論心』이라言한者로보아도如何히彼가心を重大視하엿슴을可知할지로다如斯히心を重히한結果는彼로하여금知行合一說에到達케 하고 竝아解脫을尙하야畢竟聖門의範圍外에超脫케하엿다然則此學問의思潮는恰然히陸學의先驅로다

乙, 楊龜山

龜山의名은時요字는中立이니南釵將樂의人이라其性이極히聽悟하고溫容婉柔하야伊川이最愛하다紹興五年에卒하니年八十三이라諡曰文靖이라하다其著한바는三經義辨, 語錄, 龜山集等이有하니龜山이洛學의始祖라稱함은歷史的關係에羅從源을經하야李延平에至하야디되어朱子에至하엿슴으로써-라

(一) 敬과義의同一 敬으로써內를直할時는發하야外에表한者-自然義니敬義는別物이아니라『敬必有義 有義必有敬』이니但內外의別과本末의分이有할뿐이다

(二) 龜山은以爲하되『聖人이誠意正心으로부터治國平天下에至하기까지其理-一이니內外에立키不可하고또그誠意正心を見하면天下-此에由하야平함을見하갓다』하엿도다

(三) 性善 楊子は佛敎와性善惡을比하야曰佛敎에性眞空이라云한者는人을離함이요人을離함은所謂頑空通이라第八庵摩羅識虛에白淨無垢라云하고第九阿賴耶識은善惡의種子를云하엿스니白淨無垢는即孟子의性善이是로다然한데楊龜山の門人에注意할만한者는唯胡五峰, 羅豫章의二人이로다

一, 胡五峰(傳并書)

胡五峰의名은宏이오字는仁仲이니學者-五峰先生이라하니다그의著書로는知言, 詩文, 皇王大紀가有하니라

(가) 性과心 胡子曰『聖人이道의體를指하야性이라云하고其用을指하야心이라云하니性은動치안키不能하야動하면即心이된다』하엿스니胡子는心으로써活動의이라하야此를性으로부터分하고 오즉性으로써靜한者라하다

(나) 性은絶對의善이니라 明道의說에性은所謂元氣라하엿다. 此에서龜山은性善으로써庵摩羅의此하고善惡으로써阿賴耶識에比하니即性의絶對의善된思想은其中에包含되엿다 五峰이亦其說을受하니 曰『性天地鬼神之奧』라善으로써도此를言키不足하거던況惡이라하고更히그先君子의言을聽하여曰『孟子- 性善을道함은 歎美의辭-오決코惡과對함이아니라』하니그絶對善됨으로써니라性으로써絶對善이라한바意는何者인가?乃物으로써그定分에滿足케함으로써-라其言에曰『至哉吾觀天地之神道, 其時無愆, 賦形萬物, 無大無細, 各足其分, 太和保合, 變化無窮也, 凡人之生, 粹然天地之心, 道義完具, 無適無莫, 不可以善惡辨, 不可以是非分, 無過也, 無不及也, 此中所以名也』라하엿스니此一節으로써能히그의絶對性善의說을可히見할수가足하도다

(다) 心은不死니라 性의發動을司配하는心이니故로節에中치안는다함은心에在하니라然하면心은何에標準하야求하야可할고 曰此를良心에本할뿐이다是-人類에極히機敏한機關으로써能히是非邪正을鑑別하는者라故로曰『人皆有良心, 被之以桀紂之名, 雖匹夫라도不受也』라하니라然하면胡子哲學의中心은即心이니胡子-此心을尙함으로부터曰『心無死生』이라하고又以爲『無以形觀心而以心觀心則知之矣』라하니更言하면心은生死가無하고形은死生이有하다함에不外하도다

(나) 結論 此를要컨대心은活動的物으로써그行爲에發한바-或善或惡하나니良心에從하면善하고放하면惡하다한다胡子の哲學은常識에近한嫌이有하나頗히分析明快한點이有하니라

二, 李延平

李延平의名은同요字는愿이니南劔人이라年二十四에羅仲素-河洛의學을傳한다

함을聞하고遂往學하니仲素의爲人이本來世에名을求치아니한者라先生이獨히此를深契하고退屏하야世事를謝絶한事-四十여년에簞瓢-屢空하되怡然自適하야操存이頗固하고涵養이益熟하야發而皆中節하니라隆興元年十月에卒하니年이七十一이라其著한바書는延平問答及朱子語錄등에付하야그思想을見할만하니라가, 根本思想 延平學問의第一義는靜坐瞑目하고天理를體認하야喜怒哀樂이 아즉發치안는內에서其中을求함에在하다其中을求得한然後에此를發用함을涵養의法에第一이라하니曰『問之道, 不在多言, 但默坐澄心, 體認天理, 若是, 雖一毫私欲之發, 亦退聽矣, 久用力於此, 庶幾漸明, 講學始有力』이라하니라朱子亦曰『延平先生이人의靜坐를敎하엿다』하나니此로써그學問의方法이禪에近함을能히見하겠도다

나, 朱子에대한影響 朱子-二十四歲의時에延平을見하고滔滔히自家의所學을吐露한대先生이謂曰『子-許多히說하나面前의事를不解한다』함에對하야朱子-忽然反省하야卽自家의所學이不足함을自覺하엿다한다...

(李延平完)